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선슬기**

| 목 차 |

I. 서론	IV. 계획과 시장의 관계변화
II. 이론적 배경	V.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의 경로
III. 북한의 시장화 확산	VI. 요약 및 결론

| 논문요약 |

북한의 시장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단계모형을 원용해서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전환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분석 결과로는 북한의 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제 구조변화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시장화 확산, 시장과 계획 관계 변화, 경제개혁, 경제구조변화, 경제체제전환

I. 서론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의 어려운 시기 동안 경제난이 극심해져 시장화가 시작되었다. 이때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생필품을 얻기 위해 암시장을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암시장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생필품을 얻는 주요 수단으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03년 종합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가가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7.1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이 부분적으로 보장되면서 국영기업도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7.1 조치 이후에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북한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였고, 2005년 이후로는 시장 규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규제 정책의 효과는 북한당국의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2009년 화폐개혁이라는 극단적인 시장 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화폐개혁으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물자가 부족해지고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사실상 시장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시장화가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은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소비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시장이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종합시장을 개설하는 결정으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장 활동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북한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북한의 경제구조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북한이 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기업의 일부 자율성이 보장되어 국영기업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북한당국은 시장의 확장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2005년부터는 시장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에는 시장 억제 정책으로 평가되는 화폐개혁을 시행하였다.

화폐개혁으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은 반발의 표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북한은 사실상 시장 활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정책 전환을 하게 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 통제가 완화되면서 북한의 시장화는 양적과 질적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소비의 원천으로까지 기능하고 있다.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에서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계층은 주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돈주들과 시장 활동에 익숙한 젊은 장마당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장마당 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비교적 약하며, 더 자유롭고 개인적인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계층의 등장은 북한체제의 향후 변화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주로 생존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회에서 진행 중인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시장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트남의 사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에 주민 간 상거래를 허용하고 시장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으로 이분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는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 개혁과 개방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북한에서도 시장 경제의 확산은 계획부문과 시장부문 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개방적이며 경제적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국가 전반에 걸쳐 포용적인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또한 이러한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남부베트남 사례처럼 개혁개방의 동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 변화, 시장의 확산과정, 그리고 이러한 시장화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화의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 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이를 위해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단계모형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미

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전환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가 가져오는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해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98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현상이 깊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Kornai 1994, 7-168; Chavance 1994, 7-168). 이러한 연구들은 체제전환의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사회주의가 왜 결국 자유자본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과정과 체제전환의 메커니즘을 심도깊게 연구를 하였다.

특히, 야노쉬 코르나이(Janos Kornai)는 이러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로서 그의 연구는 체제 전환에 대한 이론적 기여와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현실적인 경제 성과를 비판하며, 이상적인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약점이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사회주의로의 중간 단계와 그 후의 탈사회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시간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 접근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특히, 중간 단계의 개혁사회주의와 그

이후의 탈사회주의 전환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체제 전환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코르나이의 모델은 고전적 사회주의 → 개혁사회주의 → 탈사회주의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체제전환 과정을 제시하며, 특히 ‘개혁사회주의’ 단계를 시장화 → 사유화 → 자유화의 세 단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Kornai 1994, 7-168). 이러한 접근을 통해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체제전환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코르나이의 모델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적 변화를 거쳐 자유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각 단계에서의 주요 변화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모델은 사회주의 체제의 체계적인 이해와 변화 과정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Janos Kornai의 단계별 체제전환 모형

통제의 완성	개혁			체제전환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민주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	개혁사회주의 체제			탈사회주의 체제

· Kornai(1992, 565-570); 권속도(2009, 18 재인용)

Kornai 모형에서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1단계인 시장화는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를 시장 기반의 경제로 대체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중앙계획 대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제 활동이 조절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의 시작을 나타내며, 경제의 민주화와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의 첫 단계이다.

시장화는 중앙 계획체제의 특성을 변형시키고, 경제 활동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계획적인 경제체제로부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경제 운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경제의 유연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2단계인 사유화(Privatization)는 국가가 사적 소유권인 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 소유의 기업이나 자산을 사적 소유로 전환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자본과 자산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로 간주되며, 국가의 직접적인 소유와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사유화는 개혁사회주의 체제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 소유체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문에 더 많은 경제적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업과 자산의 민간 소유를 증가시키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마지막 단계인 자유화(민주화)는 탈사회주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 단계를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며 정치적인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탈피하고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자유화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함께,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체제의 전면적인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며,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Kornai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론은 보편적으로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의 체제전환, 즉 이중 전환을 다룬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시스템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되는 단일체제 전환의 예를 제시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Kornai 모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Bernard Chavance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단계는 전통 시스템 → 경제개혁 → 시스템의 해체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인 전통적 시스템은 사회주의

체제로, 중앙집권화와 계획경제가 운영되며, 이 시스템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게 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두 번째 단계인 경제개혁이 필요해진다.

경제개혁 단계에서는 시스템 개선과 외부 연결로 구분된다. 시스템 개선은 국영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 같은 시장 친화적 정책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구소련과 폴란드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체제 내에서의 개선과 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급진적 개혁(Radical Reform)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계획 시스템을 수정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중앙당국의 비효율적인 계획 축소, 자기자본과 은행신용을 활용한 기업투자자금 자금 조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로는 유고슬라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중국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해체는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개혁에서 체제전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가 완전히 다른 경제체제로 전환하고자 할 때 선택된다.

<표 2> Bernard Chavance의 체제전환 단계별

전통시스템	경제개혁		시스템의 해체
	시스템개선	급진적 개혁	

• Chavance(1994, 7-168)

국내 관련 연구의 사례를 보면 우선, 박형중의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부분개혁과 시장기구 도입형 개혁의 2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스탈린식 중앙집권형 경제체제에서 출발하여 부분 분권화된 중앙집권체제(부분개혁체제)로 전환하고, 이후 사회주의 상품경제(시장 사회주의)로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형중의 연구에 따르면, 부분 분권화된 중앙집권 명령체제는 기존 체제

와 소유권의 국가독점과 관리권의 중앙집권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분권적 경제관리와 민생 우선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부분 개혁체제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기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구축되면서 국가기업 소유권에 변화가 생기고 민영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고 박형중은 분석하고 있다.

<표 3> 박형중 체제전환 단계별

부분개혁	시장도입형 개혁		체제전환
부분개혁체제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 박형중(2004, 67-69)

한편, 정형곤은 체제전환의 과정은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개혁사회주의와 시장 사회주의를 거쳐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개혁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국유재산제와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분권화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체제 내부에서의 조정과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의 부분적인 조정과 분권화가 이뤄지며, 국가 중심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결정 권한과 경제활동의 책임을 지방 단위나 기업 등에 위임하여 경제체제 내의 조정이 발생한다.

반면, 시장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안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하여 사회주의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국가는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남아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이 강조되며 경제활동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조절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가 현대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발전하며,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와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조정된다.

<표 4> 정형근 체제전환 단계

개혁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체제전환
--------	---------	------

▪ 정형근(2001, 8-19)

양운철이 제시한 체제전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경제 운용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확립, 기업 설립과 같은 시장경제 운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새로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영기업의 사유화와 가격의 자유화가 진행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국가 소유 기업을 민간 센터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경제에서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가격의 자유화는 상품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시스템의 더 큰 유연성을 가져온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체제전환의 마무리를 이루는 중요한 단계로, 사유화와 가격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구조조정의 기간이 단축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로 이러한 변화를 진행할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통해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참조 <표 5>).

<표 5> 양운철의 체제전환 단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가격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사유화	산업의 구조조정
---------------	----------------------	----------

▪ 양운철(2006, 27-32)

위에서 논의한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체제전환 단계별 모형과 시사점

연구자	단계별 모형				시사점	
	통제의 완성	개혁				체제전환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 (민주화)		
코르나이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	개혁사회주의 체제			탈사회주의 체제	코르나이는 개혁사회주의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의 세 단계로 구분됨.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자유자본주의 체제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샤방스	전통적 시스템	시스템 개선	급진적 개혁		시스템 해체	경제개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은 시스템 개선과 외부 연결로 나뉨. 이는 국영기업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 같은 내부 조치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경제적 연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박형중	부분개혁	시장도입형 개혁			체제전환	연구 결과는 부분 개혁이라는 전략적인 접근이 체제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급격한 변화 없이 체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며 체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부분 개혁체제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정형곤	개혁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체제전환	시장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하여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경제활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조절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양운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가격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사유화			산업의 구조조정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결정자들에게 법적 및 경제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존중하며, 구조조정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지침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Kornai(1992, 18-30; 565-570); 권숙도(2009, 18 재인용); Chavance(1994, 7-168);
황진훈(2014, 14-15 재인용); 양운철(2006, 27-32); 박형중(2004, 67-69);
정형곤(2001, 8-19) 참고하여 정리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 전환적인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시장과 계획 간의 구조적 관계 변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의 가능성과 그 경로를 추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북한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완하고 다양성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접근은 북한의 미래 전망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북한의 시장화 확산

1.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시장현황

(1) 시장의 양적 확대

김정은 정권출범 이후 북한은 시장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목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각지에는 종합시장이 신설되고 규모도 확장되었다. 2014년,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20개의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고 약 71개 시장이 개-보수되었다. 종합시장 내 매대 수와 상인 수도 크게 늘면서 종합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8/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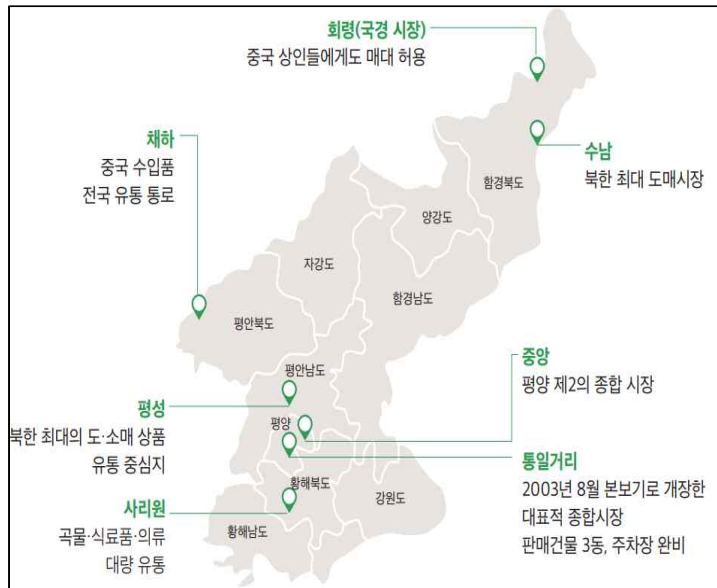
북한에는 공식시장과 비공식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공식시장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장이다. 공식시장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고 자릿세와 세금을 내어야 하며 물류교류시장과 종합시장 등이 그 사례이다.

그리고 비공식 시장은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서 예를 들면 북한의 소위 ‘메뚜기장’, ‘뚝뚝이장’, ‘달리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시장에 매대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농산물 및 식용품 등을 비공식 시장에서 판매한다. 이외에도 비공식 시장으로는 사금융시장, 주택시장 등이 있다.

한편 공식시장 부문도 확대되고 있다.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포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는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시장은 최소 436개이며, 9개의 도에 평균 48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ews1』 2018/08/27).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은 함경북도의 수남시장과 회령시장, 평안북도의 채하시장 평양의 중앙시장 등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 통일교육원(2019, 183)

한편 2016년 통일연구원에서 시행한 북한 이탈주민 면담과 구글어스 위성사진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의 공식시장(종합시장)은 404개로 집계되었고 북한의 9개 도(도, 평양직할시, 남포 특별시, 나선특별시)의 평균 시장 개수는 33.7개로 나타났다(홍민 외 2016, 107). 따라서 현재 북한에는 400여 개 이상의 공식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도별 공식시장의 수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북한 도별 공식시장 수




도	도 전체 합계
평안남도	65개
평안북도	51개
함경북도	46개
함경남도	48개
황해남도	34개
평양시	30개
강원도	29개
자강도	24개
양강도	18개
남포 특별시	21개
나선특별시	4개
총개수	404개

· 홍민 외(2016, 18) 일부 인용

(2) 시장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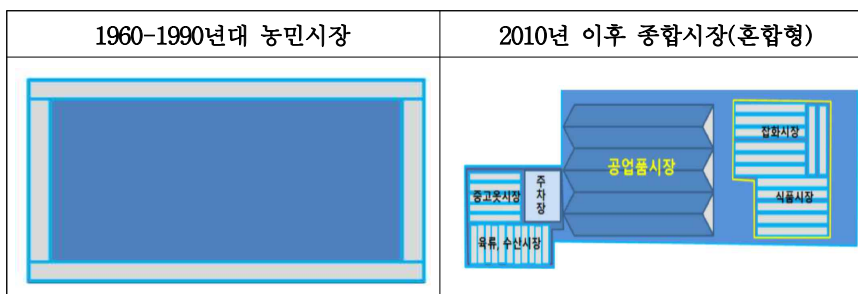
북한의 시장은 최근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구조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함경북도 청진에 소재하는 수남 시장을 구글어스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과 2018년에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표 8> 참조) 큰 변화는 시장에 기존에 없던 지붕이(파란색) 새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북한 시장의 내부 시설이 구조적 변화가 있는 사례라 할 수가 있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수남시장 변화 과정을 구글어스의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표 8>).

<표 8> 수남시장의 변화 과정

2016.5	2016.10	2021.1.15
		
2016년 5월 촬영한 수남 시장 (『자유아시아방송』 2017/03/15)	2016년 10월에 촬영한 수남시장 (『자유아시아방송』 2017/03/15)	2021년 1월에 촬영한 수남시장 ¹⁾

북한 종합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이 다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구조도 변화되었다. 현재 수남시장은 잡화시장, 공업품시장, 수산물시장, 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내외부에 채소도매시장과 같은 도매시장들이 따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홍민 외 2016, 102). 이와 같이 품목의 다양화는 시장 내부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농민시장의 경우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혼합형 등으로 종합시장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농민시장 변화



· 홍민 외(2016, 61)

1) Google Earth, <http://earth.google.com/web/@41.79123242,129.76599625,5.2390332a,764.78568345d,35y,-25.70329112h,45.0000678t,-0r>. (2021년 2월 8일 검색)

이 외에도 북한의 공식시장 위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는 시의 먼 외곽에 위치했던 시장들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내 중심가에 개설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2. 시장의 확대과정: 단계별

(1) 농민 시장과 암시장 태동기(1958-93)

북한의 암시장의 형성기는 1958-1960년 중반으로 볼 수 있다. 당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제도화는 되는 시기로서 중앙정부의 계획경제 하에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우선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중공업 중시의 결과 경공업의 상대적 미발달로 인해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부족한 생필품 조달처로서 1950년대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암거래가 늘어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1980년대 북한은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을 극복하고자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 조직되어 전국 사업소에서 식료품 또는 생활잡화 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에서 생산된 제품들 중 일부가 농민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는 북한의 암시장 확대에 기여를 하게 된다.

(2) 고난의 행군과 시장 확대기(1994-2004)

1990년대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연재해와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국내외문제에 의해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1994년에는 실질적 배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최소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배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암시장을 통해 생활고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배급이 아닌 암시장을 통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북한당국도 이러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88년부터 경제위기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경제기조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외부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실리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발표된다. 7.1 조치의 주요 내용은 임금과 물가의 현실화, 일한 만큼 분배한다는 성과급제의 적용, 그리고 기업소 등의 독립채산제 확대를 들 수가 있다(양문수 2012, 7).

(3) 시장규제와 화폐개혁(2005-2009)

2005년부터 북한은 시장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시장 규제정책을 시행한다. 시장 규제정책으로는 2005년부터 식량 배급제가 아닌 국가식량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식량 유통을 금지하고 국가기관을 통해 식량을 유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질적 실효성이 없으므로 2006년 3월에 폐지가 된다. 이렇게 규제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시장의 확대가 북한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되돌리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로서 화폐개혁을 실시한다.

2009년에 단행된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 특히, 생필품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가격폭등은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뿐만 아니라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는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4) 김정은 정권 이후 시장의 확산(2010-)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2010년 2월부터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 활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정책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출범 후 시장정책은 변화되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되고 따라서 시장 통제도 약해졌다. 북한당국은 이전과는 달리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서 계획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 활동이 확대되고 시장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북한경제는 이제 시장과 계획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3. 북한 시장화의 영향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사회·경제·정치 전 부분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양식과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의존도 심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사실상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경제구조로 변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을 배제하고는 국가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걸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된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배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을 통해 생필품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리고 기업소와 농장에 소속된 직원들도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대신 일정 금액을 상납 후 시장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시장 친화적인 생활로의 변화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그림 3> 참조) 2012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장에서의 평균수입이 3,000원 미만(북한 돈 기준) 수준의 주민들의 전체 비율 중 22.5%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수입이 5,000원 미만의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약 3분의 1(32.5%)이 직장에서 평균수입으로 3,000원 미만과 5,000원 미만에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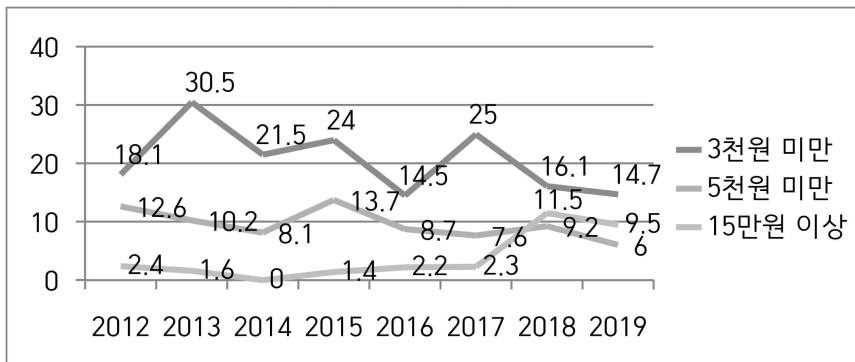
반적으로 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공식 부분에서의 월 평균수입은 일 인당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당 직장 수입은 평균적으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4인 가족 한 가구당 평균 한 달 생활비용은 북한 돈으로 300,000원 정도(『머니투데이』 2018/07/25)이기 때문에 직장 수입과는 차이가 아주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수입으로 가계지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이 되었다.

한편, 북한 기업 근로자들 중 월수입이 150,000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도에 2.4%에 불과했지만 2019년도에는 9.5%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는 최근 들어 일부 국영기업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일반 국영기업 종사자들에 비해 월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림 3> 직장에서의 평균수입(북한 돈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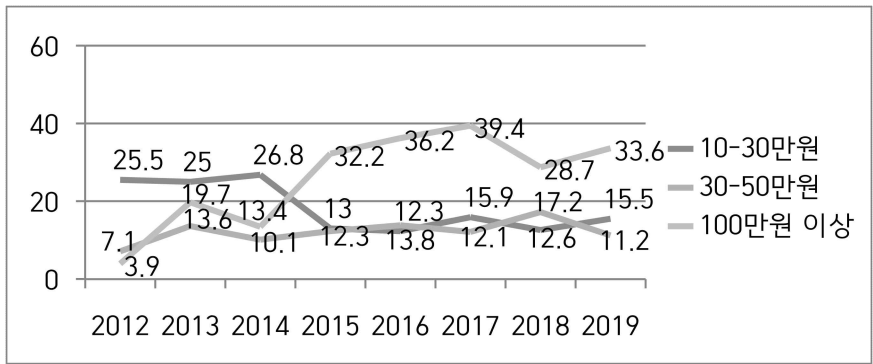
• 천경호 외(2020, 87) 참조 일부 인용

다음의 <그림 4>는 북한 주민들의 직장 외 부수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2019년 기준 북한 주민들의 약 3분의 1(26.7%)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입을 장사를 통해서 벌고 있다.

한편, 직장 외 부수입으로 1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

도에는 3.9%였지만 2019년도에는 33.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시장 활동을 통해 한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300,000원)의 몇 배의 고수익을 벌어들이는 신흥부유층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 직장 외 부수입(장사) (단위: %)



· 천경효 외(2020, 87) 참조 일부 인용

(2) 새로운 계층 등장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 오던 석유의 공급 차질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난은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도 심화되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의 배급시스템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부족한 생필품 조달처로서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화는 전 부문에 걸쳐 확산된다. 그리고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양식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고를 가진 새로운 계층이 출현되는 계기가 된다.

① 돈주: 붉은 자본가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국가 배급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자급자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왔다. 이로써 시장은 생필품을 구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의 시장화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시장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장마당에서 재력을 축적한 신흥 자본가를 ‘돈주’라고 한다. 돈주는 주로 상업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북한 내 권력층과 상호 이익 관계를 맺고 있다. 돈주들은 제조업, 부동산,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② 장마당 세대: 북한의 젊은 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에 태어나 국가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하며 자라난 세대로서 현재 북한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커가는 새로운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국가 정책에 순응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이들은 국가보다는 시장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으며 외부에 대해서도 개방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국가나 사상적인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다. 결국, 기존 세대와는 의식이 다른 새로운 장마당 세대들의 등장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주민 삶의 변화

① 시장 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

유엔의 2008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16세 이상 인구(약 1,737만 명) 가운데 83%인 1,448만 명이 시장

을 통해 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형곤 외 2012, 3). 한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약 100여 명의 최근 탈북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회변화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장사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의 비율은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 활동 등 비공식 경제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용석 2015,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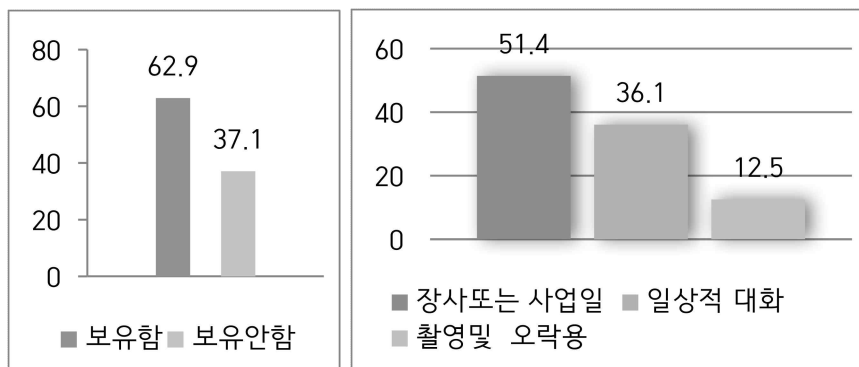
위의 결과들을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수입이 가계 소비의 원천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는 국가배급이 아닌 시장 활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이 되었다.

② 정보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고변화

2000년대 이후 북한에도 정보전달 매체들이 발달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정보 매체로는 휴대폰을 들 수가 있는데 북한의 휴대폰 사용자는 2016년 기준 580만 명을 돌파했고 2019년도에는 6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그림 5>를 보면 2019년 조사에서 휴대폰을 보유했다는 응답률은 62.9%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휴대폰 사용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휴대전화 보유율과 용도(2019)

(단위: %)



· 천경효 외(2020, 67)

한편, 휴대전화 사용 용도 중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장사 또는 사업일’이고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일상적인 대화나 소식 주고 받기’로써 36.1%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이는 휴대전화 같은 정보전달 매체의 발달로 인해 북한 내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북한 내 휴대폰의 보편화는 필연적으로 정보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주 사용용도(51.4%)가 ‘장사와 사업일’이라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폰의 보급률 증가는 북한 사회의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시장화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남한드라마와 음악이 들어있는 USB를 구입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남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예를 들면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남한드라마에서 유행한 옷들과 비슷하게 만든 중국산 제품들이 북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북한 여성들은 옷돈을 주기도 이 옷들을 구매할 정도이다. 이렇듯 정보전달 매체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IV. 계획과 시장의 관계변화

이 연구에서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모형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Kornai의 이 모형은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특히 체제전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화 단계를 강조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도 시장화가 경제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모형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의 그 경로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시장화 단계모형은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을 설명하여, 북한이나 다른 국가의 경제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의 경로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Kornai의 시장화 단계모형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기본 틀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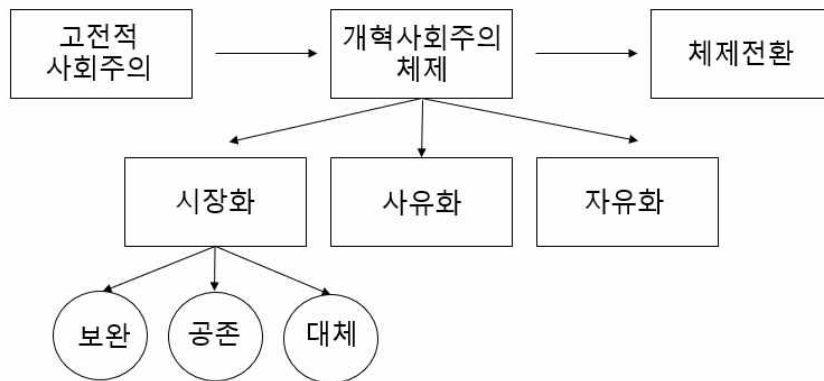
Kornai는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과정을 고전적 사회주의 → 개혁사회주의 → 탈사회주의 체제로 나누어진 ‘3단계 전환모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중간단계인 개혁사회주의를 시장화, 사유화, 민주화의 3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우에도 전환 과정 중 시장화의 단계를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추후 경제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어 보인다(<표 9>, <그림 6> 참고).

<표 9>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단계

개혁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민주화)
개혁사회주의 체제		

▪ Kornai(1992, 565-570)

<그림 6> Kornai 체제전환의 경로



▪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모형을 북한의 경우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Kornai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제약을 고려하여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화의 단계를 시장이 계획을 보완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계획과 시장이 상호 공존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는 단계로 나타내었다. 이 방법을 통해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을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참조).

북한의 시장화 확대과정을 보면 1980년대에 농민 시장과 장마당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의 경제난으로 인해 시장 활동이 확대되어 중요한 생필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시장화가 더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경제구조는 시장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서 시장규제가 완화되어 시장이 양적과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시장화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공식적인 계획부문과 비공식적인 시장 부문으로 이원화되었다. 이원화된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현재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상호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어 대북제재가 완화되며 김정은 정권이 큰 폭의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다면 북한의 경제구조가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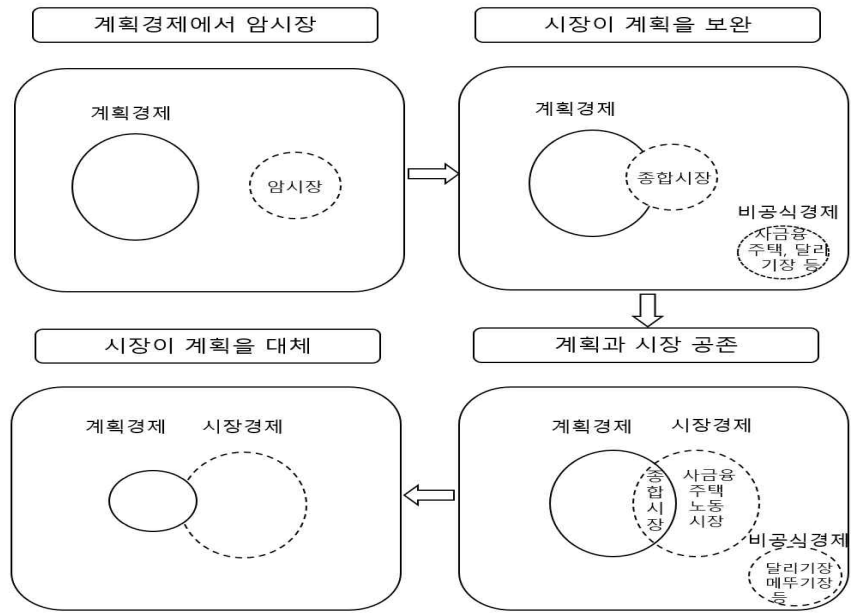
위에서 서술한 시장과 계획의 관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특히, 아시아의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는 시장화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경제개혁 즉 ‘위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사례가 있다. 남부 베트남의 경우 1980년대 주민들 간의 상거래에 대한 허용과 이를 통한 시장화 확산은 베트남 경제를 계획 부문과 시장부문으로(Two Sector Economy) 이분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Doi Moi)를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개혁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부의 경제개혁을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부 베트남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시장활동들이 베트남의 ‘위로부터의’ 개혁인 도이모이를 이끄는 동인이 되었다.

<그림 7> 계획과 시장의 관계 변화



▪ 저자 작성

베트남의 사례처럼 북한의 경우에도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시장화의 확산을 통해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경제구조가 변화된다면 북한도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체제 전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V.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의 경로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체제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이 경제개혁의 초기 단계이자 최종적인 종착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의 한계로 인해 ‘부족의 경제’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부족한 생필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시장을 활용했다. 비공식시장의 확대로 시장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정부의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비공식시장을 통해 부족한 생필품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북한의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의 개혁을 격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은 다음과 같은 5단계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제한적 개혁’ 단계에서는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해외로부터의 투자 확대와 자유경제 지역의 설정과 같은 제한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적인 시도로 이해된다. 부분적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기존 계획경제 체계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과 자원 할당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의 특정 부분에서 조정과 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외부 투자의 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자본의 유입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및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세제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경제 지역의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서 시장 원리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전체 국가 경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모색하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초기 단계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며, 북한이 계획경제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1980년대에는 해외로부터의 투자 확대를 위한 합영법이 제정되었

으며, 1990년대에는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 지역이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를 제한적 개혁 단계로 볼 수 있다.

둘째, ‘시장화 확산’ 단계에서는 1990년대의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 배급제도의 붕괴와 암시장의 대폭적인 확대가 주요 특징으로 부각된다. 이 단계는 북한이 계획경제의 한계를 뚫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시기이다.

경제난의 여파로 국가 배급제도가 붕괴하면서 주민들은 생필품을 얻기 위해 암시장을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였다. 정부의 시장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암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로써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공식시장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암시장과 같은 비공식 시장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2006년대 이후 시장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시장 통제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공식 경제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한 시장 통제 강화 시도는 주민의 불만으로 이어져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당국은 시장을 통제하는 대신 묵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시장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시장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모순적인 정책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셋째, ‘시장과 계획의 공존’ 단계에서는 정부의 계획경제 체제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상태가 구축된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시장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의식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시장 활동을 통해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당국도 시장을 배격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확산과 함께 소유권 일부의 변화와 가격 기능의 자유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서 확산되는 시장화는 앞으로도 시장의 그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향후 시장이 계획

을 대체하는 단계에까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는 미래에 개혁과 개방과 같은 '위에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즉, 시장경제의 확대는 북한경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개혁을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넷째, '본격적 개혁·개방' 단계에서 북한은 경제체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한 선행과제에 진입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자유화, 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대외개방 조치 등이 포함된다.

과거 구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개방을 통해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전환하는 이중전환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만 개혁·개방을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단일 전환국가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만 시장경제로 전환한 단일경제체제전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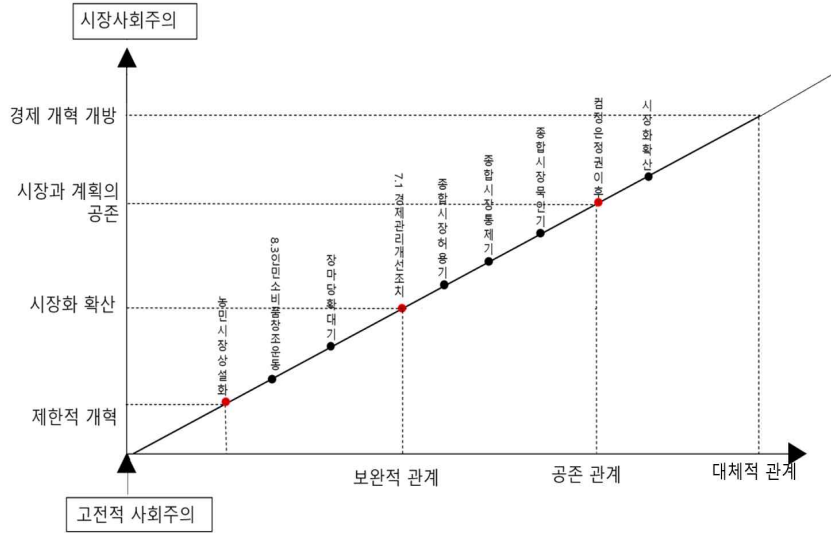
마지막 단계인 '시장 사회주의'로의 전환에서,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공식 시장이 공식 계획을 대체하는 중요한 시기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환은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에 중점을 두어 설정된다. 정부는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되며, 경제구조에 대한 주도적인 개입을 줄이고 시장 기구들에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기업들은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이 증가하며,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원칙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북한은 시장 사회주의 체제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과 경로를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8> 참조).

<그림 8>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의 경로



▪ 저자 작성

VI. 요약 및 결론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급속한 속도로 시장화를 진행하며, 이로 인해 양적 및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에는 주로 소비재와 생산재 시장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인력, 주택, 금융 시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배급체계가 아닌 시장 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득의 주요 원천이 직장 수입이 아닌 시장 활동에서 오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시장에서 얻은 수익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부의 축적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신흥 부유층과 장마당 세대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장마당 세대는 실용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기존 세대에 비해 정치에 대한 충성이 약하다고 한다.

1990년대 북한의 암시장은 주민들이 부족한 생필품을 얻는 창구였지만, 2003년 종합시장의 개설로 인해 본격적인 시장화 확산이 시작되었다. 시장화는

정체와 확대를 반복하면서 주민들에게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계획과 시장의 구조적 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초기에는 시장이 계획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지만,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시장과 계획이 상호 병존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시장화가 계속 진행되면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인 시장화를 통해 ‘위로부터의 변화’인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의 법적 제도와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 경제체제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핵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는 핵 외적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안보적 대비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 구조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의 시장화 확산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의 역량 향상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교육을 통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국제기관 및 NGO들은 북한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영 및 기술 역량을 향상시킴으로 북한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확대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제약이 있더라도 민간 접촉과 협력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이유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구축, 지역안정 촉진과 평화적 대화의 토대 마련 등과 같은 궁

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 북한이 핵문제와 대북제재와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베트남의 사례와 같이 시장화 확산이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체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이의 모형에서 제시한 개혁적 사회주의 단계를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차적으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흡수하고 발전시키면, 북한은 미래에 개혁적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권숙도 (2009).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북한, 베트남 사례 비교.”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중 (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해남.
- 양문수 (2012). “북한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KREI』. 제14권. 제3호, pp. 1-17.
- 양운철 (2006).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울아카데미.
- 정형곤 (2001). 『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미디어.
- 정형곤 외 (2012).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천경효 외 (2020). 『북한 사회변동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통일교육원 (2019). 『2020 북한의 이해』. 통일부.
- 홍민 외 (2016). 『북한 전국 시장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황진훈 (2014). “북한과 중국의 투자성장 메커니즘 비교 연구: 재정, 금융, 대외경제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avance, Bernard (1994).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London: Routledge.
-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기타

- “北 경제회복 열쇠는 시장... 정권 ‘흔들’ 할 수도.” 『news1』. 2018년 8월 27일.
- “북한의 공식시장 436개 확인.”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3월 15일.
- “장마당·택시·휴대폰 북한경제 이끈다.” 『파이낸셜뉴스』. 2018년 9월 25일.
- “킬러 tv 100-200달러... 북한에도 반도체 공장 있다.” 『머니투데이』. 2018년 7월 25일.
- Google Earth. <http://earth.google.com/web/@41.79123242,129.76599625,5.2390332a,764.78568345d,35y,-25.70329112h,45.0000678t,-0r>. (2021년 2월 8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3년 11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23년 11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8일 |

| ABSTRACT |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Economic
Structural Transformation: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Planned Economy**

Seon, Seulgi

(Northeast Asia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spread rapidly in the 2000s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lives of its people. The resulting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and the plan is expected to serve as a major driving force for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using the marketization stage model, which is the early stage of Kornai's reform socialist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ransforming into a structure in which the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coexist interdependently, and this change appears to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lead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 Key words: Spread of Marketization, Change in Market and Planning Relationship, Economic Reform, Economic Structural Change,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